

월남 패전(敗戰)의 원인과 교훈

徐 慶 錫

(고려대 명예교수, 예비역 육군 중장)

1. 머 리 말
2. 월남 패전의 원인
3. 월남 패전을 통해서 본 교훈
4. 맺 음 말

1. 머 리 말

시(時)의 고금(古今), 양(洋)의 동서(東西)를 막론하고 전투(戰鬪)는 전쟁의 한 부분이었으며 전투의 승리가 전쟁의 수행과 승리에 기본 요건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지도하는 사람이 당시의 환경과 상황 및 적의 능력과 기도에 알맞는 전쟁지도 능력을 발휘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월남전쟁은 세계 제2차대전 이전을 제외하고, 대전 이후만 고려하여도 무려 30여년간이나 지속되었다. 제1차 월남전쟁은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싸운 전쟁으로 프랑스의 식민지배에 항거하여 싸운 전쟁이다. 소련과 중공

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전쟁으로 이때부터 30년의 비극이 시작된다.

제2차 월남전쟁은 1954년-1973년까지로 미국이 참전하여 제한전쟁의 방법으로 싸웠으며, 제3차 월남전쟁은 미군 철수 후 월남군과 월맹군이 1973년에서 1975년까지 대결한 전쟁으로 월맹의 승리로 끝이 났다.

주지하다시피 제2차 월남전에서 연합군은 매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음에도, 결국 전쟁에서는 패배했다. 이는 월남정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월남 사회의 국론분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분열과 분쟁, 부정과 부패, 정치 및 사회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행동, 그리고 학생, 종교인, 언론인, 노동자 및 재야 지도자들이 적을 앞에 두고 벌이는 지각없는 무분별한 행동은 급기야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월남 패망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월남전에 참전한 한 사람으로서 자유우방국의 다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월남이 패망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전개과정을 볼 때, 우리와 비교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또한 이 글은 필자의 월남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2. 월남 패전의 원인

(1) 월남 내부와 미국에서 찾은 패인 분석

1) 월남전쟁은 내전(內戰)이 아니다.

미국과 연합국은 월남전쟁을 혁명전쟁의 범주내에서 게릴라전으로 간주하여 월남전 자체를 월남 내부의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은 큰 과오(過誤)였

다. 분명히 월남전쟁은 월맹의 침략전쟁이었다.

여러 공산국가들이 월남전쟁은 월남 국민들이 체제를 부정하고 스스로 봉기한 내전이라고 선전하면서 남의 나라 국내문제에 다른 강대국이 개입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의 월남전 참전을 맹렬히 비난(非難)하였다.

미국은 소련과 중공과의 마찰을 두려워하여 전쟁을 월맹측으로 확산시킨 다던가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에 있는 성역(聖域)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공세적인 작전에 많은 제한을 주었다. 그러나 1952년 프랑스가 노획한 월맹 노동당의 기밀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월맹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남 전 지역과 라오스, 캄보디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던 월맹은 1953년 11월 말에 시작된 디엔 비엔 프 전투에서 보 구옌 지압(Vo Nguyen Giap)장군의 월맹군이 1954년 5월 7일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자,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이 분할되었고, 2년 후에 총선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Geneva)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때의 협정에서 남북의 군대가 300일 이내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민간인도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남북을 선택(選擇)하기로 합의하였다. 월맹은 이 시기를 이용하여 조직의 확장과 정비 및 교육에 전념하였다. 6,000명의 정예(精銳) 공산분자를 남쪽에 잔류시켰으며, 북쪽을 택한 남부 출신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남쪽에 재 침투를 시켜서 정부기관, 군대, 경찰에서 활동하도록 했고, 농촌에는 지역별로 작전기지를 설치하였다.

1956년 7월에 실시하려던 총선(總選)이 거부되자, 남쪽의 공산분자들은 월맹의 지시에 따라 활동을 시작하였다. 테러, 암살, 국지적인 게릴라전이 전개되었으며 이 시기에 V. C(Viet-Cong : Vietnam Communist)라는 용어가 탄생(誕生)하였다.¹⁾

이를 보더라도 월남전쟁은 월맹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지도아래 확고한

1) 유재현, 「월남전쟁」, 도서출판 한원, 1992, p. 108.

목표를 가지고 수행된 휴전협정의 고의적인 위반이며 월남에 대한 적대행위이고 침략전쟁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 스스로 월남전쟁을 혁명전쟁의 범주내에 있는 내전으로 간주하고, 내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군사활동을 한 것은 전쟁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첫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 전쟁은 위장(偽裝)된 내전이다.

2) 월남(越南)의 적은 누구였나?

월남 정부는 싸워야 할 적이 많았다. 월맹과 싸워야 했고, 베트남과도 싸워야 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월맹과는 싸우지도 못하고, 그들의 하수인(下手人)인 월남내의 게릴라와 싸웠다. 전쟁의 상대를 잘못 선정하였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오스, 캄보디아가 적이고, 더욱 어려운 것은 월남내부의 철없는 종교인(宗教人)을 포함한 민주화의 기수를 자처한 정치인들, 부정부패와 독재정부를 타도(打倒)하자는 학생들의 시위가 적보다 더 무서웠다. 모든 전쟁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적과 싸우는 군사적 조치는 미국과 연합군에게 일임하고, 자신들은 정치싸움만 하는데 기력(氣力)을 소진했다.

3) 월남 지식인(知識人)과 젊은 학생들은 무엇을 했나?

미군과 한국군 등이 철수를 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에서 월남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 우선하여 국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공산주의자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국가적 전의(戰意)와 단합(團合)이 선결문제이며, 이 같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민족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월남은 단합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찢겨져 있었다. 순수한 애국자를 자처하는 정치인, 불교도, 천주교도, 학생, 노동자를 포함한 저명인

사들은 스스로 민족주의자임을 자처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정부편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월맹편도 아닌 애매(曖昧)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공산당의 행동조직인 민족해방전선에 가담하거나 동조(同調)를 하는 인사가 많았다.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고 국가가 수행하려는 모든 정책에 비판을 하고 반정부활동을 계속하였다. 정부는 힘을 모아 적과 싸우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국내 정치문제로 힘과 노력을 소진해 버렸다.²⁾

대학생들은 혼란을 주도(主導)하고 나섰다. 매달 수 천명의 젊은 병사들이 전장에서 죽어 가는데 월남의 대학생은 징집이 연기되어 학업을 계속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학생으로서 공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독재정권을 타도(打倒)하고 동시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반정부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대학생들은 비밀리에 나도는 공산주의 서적을 탐독하고 호지명 전기를 읽고, 민족해방전선의 선전에 빠져들고, 공개적으로 가입하는 학생도 늘어났으며, 반공을 외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월맹 노동당 비밀당원인 사이공 의대생 Huyen Tan Mam(월남 패망 후 비밀당원으로 판명)은 학생운동을 교묘히 조종하고 있었다. 1968년 구정공세 이후 사이공 정부가 총력투쟁의 일환으로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려고 하자 학원을 병영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시위를 벌려 폐기되었으며, 이는 반정부시위로 발전되었다.

경찰이 시위주동자인 Mam을 체포하자, 석방하라는 시위와 수업거부가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어 구속된 학생들을 전부 석방하라고 요구했으며, 나아가 국회의사당까지 점령했다. Cambodia 월경작전이

2) Voan Voan Taoi, 이덕형 역, 「베트남 수용소」, 문예출판사, 1987, pp. 65~175 :

이영희, 「베트남 전쟁」, 두레 신서, 1985, pp. 70~75.

한창일 때는 시위 구실을 찾던 학생들은 Cambodia 대사관을 한달 동안 점령했다. 학생들은 정부와 전쟁을 하고 있었다. 티우(Thieu) 정권이 이상과 희망을 주는 정권이 아니라는 명목(名目)으로 시위의 구실을 삼았다. 월남 사법부는 학생은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하여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는 다짐을 받고 모두 석방하였다. 그들은 환영 나온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학원으로 돌아갔고 민중의 영웅(英雄)이 되었다.

1971년 10월 3일 월남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후보는 3명으로 Thieu 대통령, Nguyen Cao Ky 부통령, Duong Van Minh이었다. 키 부통령이 후보등록을 위한 추천자가 미비된 것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후보실격판결을 받았다. 월맹 공산당에게 지령을 받는 민족해방전선에서 Minh에게 후보 사퇴압력을 가하자 그는 사퇴를 하고 말았다. Thieu의 단독 출마를 막으려는 대법원이 Key부통령의 실격(失格) 판결을 뒤엎고 후보등록을 승인했다.

그러나 Key도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으나 선거는 그대로 실시되어 Thieu는 재선되었다. 전국이 들끓고 정치단체, 불교도, 천주교도, 꽤가 갈린 군인, 버리고 호기를 노리던 학생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거의 무정부(無政府) 상태가 되어 버렸고 혼란은 극에 달했다. 적과의 전쟁은 미국과 연합군에게 맞기고 그들은 무서운 적을 눈앞에 두고 갈피를 잡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월남전 반전운동이 맹렬히 전개되고 있고, 월남에서는 반 Thieu전선이 형성되어 있어서 자기들의 지시에 따라 조정이 되는 것을 보고 월맹은 승리를 확신하고 무력남침의 호기가 도래한다고 믿고 전투준비에 박차(拍車)를 가했다.

4) 지도자(指導者)의 지도도와 당시의 사회상은?

1000여 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월남인이 중국관리에게 배운 것은 수탈(收奪)과 매관매직 뇌물과 부정부패였다.

이런 기질을 잘 아는 월맹은 강력한 공산주의식 통제방법을 사용하였다.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철저히 통제되어 불만이 노출될 여지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호지명은 독립투사로 8년간 대불항쟁을 주도하여 오늘의 독립을 가져온 민족지도자로 부각(浮刻)되었다. 호지명은 독신으로 평생을 보냈으며 그의 전 재산은 대나무 침대와 검은 색의 상하의 전통 옷, 샌들, 야전 무전기가 전부였다. 일생을 청렴하게 살았고 개인재산이 없었던 세계적인 몇 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반면에 월남의 Diem 대통령은 프랑스의 식민관리로 출발하여 32세에 성장과 내무상을 지낸 치명적(致命的)인 경력을 갖고 있었다. 미국의 영향을 인식한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저명한 인사들과 친교를 맺고 그의 반공(反共)노선이 인정을 받아 미국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³⁾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존경과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적인 사람으로 변모했고, 부정부패는 심화되고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되었으며, 직위에는 공식 가격이 매겨지고 급행료와 사례금이 공식화되었다. 미국의 원조는 부정처분되어 권력자의 사금고로 들어갔으며, 인구의 80%인 농민은 치솟는 인플레이로 가난에 시달리고, 토지분배가 불공정하여 없었던 지주가 나타나 관리를 앞세워 소작료를 거두어 가고, 평정지역에는 군대를 업고 새 지주가 나타났다.

인사정책의 실패, 만연된 부정부패, 토지분배의 실패, 정직하지 못한 위정자의 거짓은 분열의 길로 치닫고 있었다. 1963년 2월에서 1965년 11월까지 16개월간 6회의 쿠데타가 있었고, 1967년 9월 1일 Thieu가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기까지 3년 10개월 동안 정권교체가 10번이나 시도되었다. 전쟁을 수행해야 할 군대가 혼란의 주역(主役)으로 등장했다. 정계, 종교계, 군부, 대학, 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 침투한 간첩에 의해 교묘하게 조종되어 혼란이 극에 달하고, 전투에서 영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정부 투쟁의 주모자가 국민의 영웅(英雄)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적과 싸워야 할 군대도 타락(墮落)이 극에 달했다. 보직과 승진은 능력과 경험 및 청렴도에 두기보다는 혈연과 지연, 인간관계 및 재산으로 결정되었으며, 군구지역 내에서 성장이나 연대장 직책까지도 매관매직되었다. 장

3) 유재현, 「월남전쟁」, 한원, 1992, pp. 524~530.

교들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財物)을 모을 수 있는 보직을 찾아 뇌물을 바쳤고, 탈영이 심했으며, 심지어는 위관장교들까지도 전투를 회피했다.⁴⁾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굶어모으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월남 항공사 사장은 Thieu대통령의 친구요 사돈간으로 밀수를 해서 거금을 모았다. 10,000불이면 병역을 면제해주고, 사이공 Cholon 지구 경찰서장은 미화 130만불에, 캄보디아 국경지역의 Chau Duc성장은 8만불에, 군단장 사단장도 몇 만불의 돈으로 보직되었다. 대통령은 돈을 받아먹은 Nguyen Vinh Nghi를 중장으로 진급시켜 4군단장에 임명했는데, 그는 군단장 보직후 25,000정의 소총과 8,000대의 무전기를 V.C에게 팔아 먹었다. 집에 있는 유령군인이 나타나고 꽃 군인 즉 고급장교의 사택에서 노는 병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5) 미국과 월남의 국민의지(國民意志)는?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며,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은 국회동의가 없이 월남에 군대를 보냈고, 선전포고(宣戰布告)도 없이 전쟁에 참여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참여 없이 전쟁을 한 셈이다.⁵⁾

월남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월남의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적까지 깊어지고 전쟁을 시작했으므로 월남국민은 전쟁뿐 아니라 나라의 정치, 경제와 같은 내치문제까지 미국에 떠맡겨 버렸다. 지도자는 전쟁의 승리는 뒷전에 미룬 채 정치적 분쟁(分爭)만 계속했다. 일반 대중은 지친 나머지 이데올로기는 관심이 없고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월남국민의 참여가 없이 미국행정부가 단독 전쟁을 했던 셈이다.

4) 서경석, 「전투감각」, 샘터사, 2000, p. 320.

5) Summers, 민평식 역, 「미국의 월남전략」, 병학사, 1983, pp. 36~50.

6) 힘의 중심(Center of Gravity)이 된 언론은?

카메라는 거짓말쟁이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쟁이다. 월남전 이전에는 전황보도를 라디오를 통해서 음성으로 전달했지만 TV의 등장으로 생생한 현장 사진이 안방까지 거의 실시간대에 전달되었다.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살생이 없을 수가 없다. 전쟁 자체(自體)가 살생이고 파괴이다. 따라서 비참하고 잔인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맹의 수도인 하노이 폭격시 생생한 현장사진을 TV를 통해 본 미국의 국민들 사이에는 비인도주의라는 여론이 일어났다. 미공군의 폭격으로 네이팜을 뒤집어쓰고 울어대는 소녀의 모습은 미국국민으로 하여금 자국 군대의 잔인성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오류(誤謬)를 낳았다. 월남전쟁을 부도덕한 전쟁, 더러운 전쟁으로 여론이 들끓게 하는 견인차(牽引車) 역할을 한 셈이다.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흥분되는 순간과 특종만을 찾아다니는 TV카메라가 이적행위를 했다. TV화면이 등장한 이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장의 생생한 상황이 세계의 각 가정에 즉시 보여지게 됨으로 국민여론이 힘의 중심점(中心點)이 되어 버렸다. 전쟁과 전투를 모르는 젊은 풋내기 기자들이 언론사의 상업적 방침에 따라 특종을 따라 다녔고, 불평불만이나 소문을 확인의 과정이 없이 보도하였다. 비참하게 죽은 자의 시체, 무차별 사격, 추락한 헬기와 미군의 시체, 불타는 건물, 피난민과 울부짖는 부녀자의 단편적 사진을 마치 전체가 다 이 같은 것처럼 보도하였다.

월맹측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힘의 중심점이 되어버린 미국의 국민여론을 향해 맹렬한 공격을 했으며, 미국은 국내 TV마저 여론을 적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셈이 되었다. 공산진영의 거대한 선전매체는 그들의 전쟁을 정당화시켰고, 비인간적이며 추악한 행위로 간주케 하였으며, 월남정부는 부패하여 지원과 원조의 가치가 없는 나라로 부각시켰다.

힘의 중심인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무섭게 달려드는 적 앞에서 미국의

정신나간 대학교수, 주교, 목사, 수녀 등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반전단체는 월남지원을 종료시킴으로써 세계평화를 달성하자는 악명 높은 호소문인 '목사의 편지'를 널리 유포시켰다. 반전시위로 인해 힘의 중심이 된 여론은 자기 정부가 아닌 적 월맹측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7) 위험(危險)에 대한 극복노력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위험에 대한 선입관이나 편견(偏見)은 매우 위험하며, 이는 사고의 기능을 마비시켜 영원히 상대국의 위협을 극복하지 못한다. 한국전쟁시 중공군(中共軍)이 개입하여 인해전술(人海戰術)로 덤벼들자, 중공군의 격멸이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은 휴전으로 전쟁을 마무리 지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핵(核)의 힘을 전적으로 믿고 있을 때, 1964년 10월 16일 중공에서도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군이나 연합군은 핵공격을 우려하여 중공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다.⁶⁾

특히 미국이 가장 무서워한 두려움의 대상은 소련이나 중공 및 월맹보다도 자국내의 여론(輿論)이었다. 많은 미국인이 전장에서 죽거나 부상했으며, 반전운동 및 공산주의자의 선전선동 활동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자국 국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공산주의 국가는 보도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철저히 봉쇄(封鎖)함으로써 극복했다.

마침내 미국은 월맹본토에 대한 과감한 공격을 못한 채 월남 내부의 분산된 게릴라만 상대로 싸우는 전쟁을 하다가 끝내는 휴전으로 전쟁을 마무리지어 버렸다.

8) 국내조건은?

지형적인 조건을 보더라도 적은 월맹, 라오스, 캄보디아와 연하는 1천마일 이상의 국경을 이용하여 지원을 받았고, 이곳에 병력을 보존했다. 반대

6) 서경석, 「전투감각」, 샘터사, 2000, pp. 337~338.

로 월남은 중요한 군사 및 민간시설을 경계하고 촌락과 주민도 보호해야 했으며, 공세작전도 수행하고 예비병력도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각지에 분산시켜 월맹군 공격시 각개격과 당했다.

월남은 지식 수준이 낮은 가난한 나라였다. 생소한 정부형태인 민주주의를 채택하기엔 여건이 전혀 맞지 않았다.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전쟁을 수행하는데 많은 곤란을 주었다. 병력동원, 탈영(脫營), 징병기피 등 국가적인 철저한 통제와 질서확립을 해결해야 했고, 패배주의적 반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처럼 반드시 강한 통제를 취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강압적인 조치는 할 수 없었다.

국민의 민주주의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통제력(統制力)이 미흡한, 걸맞지 않는 민주주의적 방식을 채택했다. 이런 제도로는 월남국민 속에서 쉬어서 생활하는 친공분자를 통제하고 무력화시키는 데는 많은 결함(缺陷)이 있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나라에서 공산당 간부의 가족이나 친인척 상당수가 월남내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고, 직간접으로 월남정부와 군부에까지 침투하여 있었다. 월남공산화 이후 상당수의 월남장류 언론인, 예술인, 공무원, 정치가, 고급장교들이 공산주의자로부터 그들의 공로와 자질에 상응(相應)한 보직을 받은 것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의 첩자가 월남정부와 군부 등 도처에 잠입해서 활동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준다.

월맹은 동원령을 엄격히 이행하였으므로 징집기피자는 거의 없었으며 징집연령 미달자도 대거 그들의 대열에 참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월맹의 공산주의자들은 전체주의적 사상과 공산당이 통제하는 경찰국가의 통치방식을 통하여 전쟁하는 나라답게 후방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안정(安定) 등 국내적인 질서와 평온(平穩)을 유지함으로써 남과 북이 아주 대조적인 후방(後方)현상을 나타내고 있었다.⁷⁾

7) 유재현, 「월남전쟁」, 한원, 1992, pp. 368~373.

9) 공포(恐怖)의 통제와 공황(恐慌 : Panic)의 현상

군사작전을 무용지물로 마비시키는 피난민의 홍수와 패주하는 무리는 적보다 무섭다. 월남군은 미군장비로 무장된 110만명의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으면서 싸움다운 싸움을 한번 하지도 못하고 조기에 자멸한 것은 전쟁지도본부의 잘못도 있지만 피난민의 홍수로 대혼란이 야기되어 국가적인 마비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유언비어(流言蜚語)와 부대재배치 계획으로 부대가 이동을 하자 놀란 민간인이 도로로 몰려들었고, 기동하는 부대와 도로에서 뒤범벅이 되어 기동부대는 피난민 속에서 없어져 버렸다.⁸⁾ 지휘체계가 마비되고 군대는 폭도화 되고 전장의 군기(軍紀)가 무너지면서 가족을 찾아 뿔뿔히 흩어지고 장비까지 유기하였으며 집단탈출 및 전투를 회피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포로가 된 자는 장비까지 몰고 적에게 가담했다.

Hue지역 제1군단의 막강한 공수사단도 싸우러 가기 위하여 도로로 나왔다가 피난민의 홍수(洪水)로 부대기동이 마비되어 부대 자체가 붕괴되어 버렸다. 전투력을 충분히 갖춘 전투부대의 기동(機動)이 피난민 대열에 흡수됨으로써 부대의 조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2) 전쟁 원칙을 적용한 분석

1) 전략(戰略)과 전술(戰術)의 개념의 적용은?

전략(戰略)이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의 운용이다.⁹⁾라고 크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정의된 바 있다. 전략은 전투의 운용(運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투는 전쟁 목적을 달성하는데 운용되어야 한다. 전투가 전

8) 국방부 전사편찬 위원회, 「월남 최후의 붕괴」, pp. 140~148.

9) Clausewitz, 「On War」 : National Rapoport, p. 241.

쟁목적을 달성하는데 운용되지를 못하면 잘못 운용된 것이다. 월맹은 연합국으로 하여금 월남내 깊은 산속과 농촌마을 등 지하에서 활동하는 보조부대인 게릴라와 싸우게 함으로서 전력을 소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모택동 전술인 16자 전법과 4대불타(四大不打)주의, 즉 적이 세면 공격하지 마라. 증원부대가 가까이 있으면 공격하지 마라. 적이 고립시에도 견고한 진지에 있으면 공격하지 마라. 공격을 해도 종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공격하지 마라. 월맹은 이런 모택동의 전술을 적용하여 자신의 전투력을 보존하면서 소수(小數)를 가지고 다수(多數)를 상대하는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반면 미국의 대월남 전략은 적 월맹이 바라던 대로 분산된 게릴라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미국과 월남 정부는 대게릴라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만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그 대처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월맹이 수행한 월남내의 게릴라전은 월맹의 궁극적 전략목표인 월남(越南)의 공산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활동 중에 한 부분인 전술적 차원의 작전에 지나지 않았었다.

Summers 대령이 쓴 『월남전』(On Strategy : The Vietnam War)에서 보면, 2차 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적용된 대량 보복의 전투수행 개념에서 게릴라전으로 전환하는 교리에 대한 준비가 부신했던 점을 시인했다. 또한 월남전을 진두지휘(陣頭指揮)하던 Kennedy 대통령 자신이 그의 참모와 정부기관에 대게릴라전 업무에 최우선을 두라고 촉구했기 때문에 월남전의 방향이 대게릴라전 중심으로 흘러간 것을 지적했다. 이것이 미국의 대월남 전쟁을 대게릴라전 중심으로 전투를 수행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군인들은 대게릴라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¹⁰⁾

실제로 월맹은 건재한 주 전투력을 월맹 자국내에 보유하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투입시기를 기다렸고, 일부의 월맹군만이 월남내에 잠입하여 분산되

10) Harry G. Summers, 민평식 역, 「미국의 월남전략」, 병학사, 1983, p. 96.

어 활동하는 게릴라를 지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월남전략은 본토(本土)에 존재하고 있던 월맹군의 전투력과 월남 내부에 침투하여 월맹군 및 현지 게릴라를 파괴하기 위한 종합해결 방안을 동시에 모색(摸索)했어야 했다.

미국과 연합국은 월남전에서 시종일관 게릴라를 전략목표로 간주하여 게릴라를 향한 군사행동만을 주로 행사하고, 월맹내의 적 주력의 격멸을 포기한 것은 큰 착오(錯誤)였다. 전쟁기간 중에 공군에 의한 월맹 본토공격은 있었으나,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미 지상군이 국경을 넘어서 월맹을 공격한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월맹군의 주력 격멸(擊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전략적으로 월남전쟁을 단순한 대게릴라전으로 간주한 공식적인 견해와 규정 및 Kennedy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월남전에 관한 견해는 군사전략 수행에 편견과 과오를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 대통령 측근의 대학 친구들은 군인들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으며 군인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즉 군사작전으로 월남내의 게릴라를 소탕하고, 적의 통제하에 있는 마을을 평정하여 농민을 그 마을에 정착시키고, 훌륭한 행정과 지원으로 민심을 규합하고,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국민과 게릴라를 분리시켜서 주민들 속에서 게릴라가 살지 못하게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해 나갔다. 즉 물(주민)과 물고기(게릴라)의 관계에서 물을 물고기가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전략이었다.

이는 적이 월남 내부에만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월남전쟁의 개념을 월남내부의 전쟁으로 한정시켜버린 것이다. 이는 곧 월맹이 월남을 침공하여 제네바 협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미국 스스로 부정(不正)한 것을 의미하며, 월맹의 본토공격의 명분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¹¹⁾

11) Harry G. Summers, 민평식 역, 「미국의 월남전략」, 병학사, 1983, p. 116.

2) 목표(目標)선정은 적절했나?

모든 군사작전의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하며 명확하고 결정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달성이 가능해야 한다.¹²⁾ 이러한 목표의 원칙에 따라서 임무를 분석해 보면, 월남의 미군이 월남정부와 월남군을 도와서 공산주의자들의 월남정부 전복의도와 침략을 격퇴시키겠다는 주월 미군의 군사적 목표는 타당(妥當)하다고 본다. 그러나 두 번째 임무인 안정된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월남을 건설하는, 즉 군사적 목표가 아닌 정치적 목표를 선정한 것은 잘못 선택한 것이다.

군인은 전쟁의 전문가이지 정치적·경제적 건설에는 아무리 전문가가 보좌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문외한(門外漢)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월남의 경우, 군사적인 임무수행 하나만도 벅찬데 국가의 정치·경제적 건설을 군인이 담당한 것은 노력과 집중의 낭비(浪費)를 초래했으며 시간을 빼앗기고 군사작전을 등한시(等閑視)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적의 목표는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을 격멸하는 것인데 반하여 연합국의 목표는 적의 침략을 월남내에서만 저지한다는 소극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월남 정부나 미군이 부여받은 임무는 적을 저지하여 월맹으로 철수시키고 월남군을 증강시키며 월남 평정계획을 지원하여 이를 달성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지시받았다. 무능하게도 전쟁환경에 맞지 않는 전략적 전술적 목표를 제시하는 우를 범했다.

3) 공세(攻勢)의 원칙은 잘 적용되었나?

공격전투는 결정적인 목표에 지향되어야 하며, 행동의 자유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방어시에도 주도권을 획득하고 공세행동으로 결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¹³⁾ 그러나 월남에서는 전체

12) 육군본부, 「전쟁원칙 적용」, 1992, p. 84.

13) 육군본부, 「전례집(2) 공세의 원칙」, 1997, p. 11.

적으로 전략적인 방어개념으로만 임했다. 전술적으로는 일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때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세(守勢)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적은 월남전역에 게릴라를 분산(分散)시켜 소수의 병력으로 전술적인 방어를 수행하면서 수시로 대소 규모의 공세를 취하여 미군과 연합군을 기지에 묶어 놓고는 대량의 월맹정규군을 성역인 월맹지역에 보유하고 있다가, 정글에서 지친 미군이 철수하자 전략적 공세를 취하여 월남을 공산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 자체를 적 주력부대인 월맹군이나 적의 심장부인 하노이를 향해 수행하지 못하고 보조부대에 지나지 않던 월맹의 앞잡이인 게릴라들에 대해 모든 전력을 소모(消耗)했다.

월남내의 게릴라는 월맹군 주력이 아니므로 결정적인 목표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분산된 게릴라를 쫓는데 전투력을 낭비하면서 적의 주력이 건재한 국경 너머 월맹으로는 한 발자국도 공세행동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적의 전의를 파쇄하지 못했다. 그나마 밤만 되면 기지내로 들어와 잠을 잤으므로 야간에는 오히려 적들의 세계가 되어버렸으니 행동의 자유마저 반쪽은 상실한 셈이었다.

전장의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며, 최신정보 역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적절한 결심이 적시에 내려지지 않으면 전쟁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월남에 있는 미 야전군 사령관은 이역만리에 있는 본국의 상급자에게 결심을 받아야 했고 본국의 훈령과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다.¹⁴⁾ 야전군 사령관은 정치적 이유로 군사작전에 제한을 받고 본국의 눈치를 보며 결심을 적시에 하지 못하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올바른 공세활동을 못했다.

4) 집중(集中), 절약, 기동(機動)의 원칙 적용은?

집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투력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목표에

14) 유재현, 「월남전쟁」, 도서출판 한원, 1992, p. 468.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이지 못한 지역의 전투력을 과감하게 절약해야 하며, 기동이 보장되지 못하면 전투력 집중이 불가하니 이 세 원칙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법이다.¹⁵⁾

모든 전투력은 적의 힘의 중심으로 지향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당시 전략은 월맹본토를 공격하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월맹의 힘의 중심이 되는 월맹의 수도나 군대, 전쟁지도 본부 등을 지향(指向)하지 못했다. 지향해야 할 힘의 중심이 없어졌으니 전투력을 절약하여 신속한 기동으로 집중할 대상이 없는 전쟁을 한 셈이다. 미국은 월남내의 분산된 게릴라를 힘의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대상(對象)을 잘못 선정했다. 반면에 월맹은 월맹 내부에 수준 높은 정규군을 확보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반면에 월남 내에서는 게릴라들의 위장작전으로 미군과 연합군 및 월남군으로 하여금 대게릴라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여 전투력을 분산시켰다.

기동(機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월남군은 다른 나라의 정규군과 달랐다. 일부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제외하고는 집 근처에 배치되거나 아예 부대 영내에서 가족을 데리고 생활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대 이동시에는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가족은 물론 세간살이까지 싣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기동이 어려웠고, 월맹군과 싸우기 위한 병력집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¹⁶⁾

5) 지휘통일은 잘 되었나?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견해(見解)는 군사적 견해를 잘 지도하여야 한다. 모든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일이 되어야 한다. 지휘통일은 전 부대가 협조된 활동을 함으로서 노력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지휘통일은 단일 지휘관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성취될 수 있다.

15) 미아전교범 100-5 : Harry G. Summers, 민평식 역, 「미국의 월남전략」, 병학사, 1983, p. 158.

16) 전사편찬위원회, 「월남 최후의 붕괴」, pp. 140~149.

Kennedy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러스크(Rusk) 국무장관, 맥나마라(Mcnamara) 국방장관, 번디(Bundy) 안보 보좌관이 참석하는 백악관(白堊館) 비공식 회의를 더 중요시켰으며, 존슨(Johnson) 대통령도 대외 정책수립, 제반 협조 및 업무통제는 케네디(Kennedy) 방법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정책수립에서 군사적인 감각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전에서는 UN군이 단일 지휘체제하에 있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승만 대통령은 UN군 최고 사령부에서 한국군까지 작전지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반면 미군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기간 중 월남은 지휘통일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전쟁의 기본원칙인 지휘통일의 원칙을 위배하게 되었다. 단일화된 지휘체제 대신에 협동 및 협조라는 새로운 원칙이 상호이해와 친선을 통하여 각 제대에서 활용되었다.

각급 지휘관들은 충돌을 회피하도록 신중하게 노력했으나, 전투력 운용이나 작전수행에서 그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소한 갈등(葛藤)과 불협화음(不協和音)이 누적되어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국군의 편의만 챙기고, 부적절한 결심, 결심의 지연, 전투력 및 자원의 낭비를 초래(招來)하였고 타국군과의 사이에서 감정적 대립문제까지 야기되었다.

6) 경계(警戒) 및 기습(奇襲)의 원칙은?

경계는 전투력을 보존하고, 우군에 대한 적의 정보활동을 거부하며 행동의 자유를 유지하고 적의 기습을 방지한다. 기습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 및 방법으로 강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적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이 알았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너무 늦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⁷⁾

17) 육군본부, 「전례집(1)」, 1997, pp. 327~328.

첫 번째 전략적인 기습은 1965년 미국이 처음으로 월남에 뛰어들 때이다. 하노이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이 월맹에 폭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월남에 지상군을 투입(投入)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 대륙의 지상전에 미국이 개입(介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또한 정치가들은 미국이 월남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¹⁸⁾ 특히 1964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월맹에 대한 폭격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공언하면서 “아시아 국가의 자국방위는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며 미군을 파병(派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공식(公式)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군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월맹의 지도자들은 경악(驚愕)을 금치 못했으며, 미 지상군의 상륙은 전략적인 기습을 충분히 달성하였다.

두 번째는 월맹의 전략적 기습이었다. 모든 지상전투에서 연합군 측이 승리했으며 화력이나 기동력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우세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월맹군은 점점 더 비틀거렸고 연합군 측의 전투력은 극에 달했다. 연합군 측은 전쟁에 대해서 낙관적(樂觀的)인 전망을 하면서 전쟁이 곧 끝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공산군은 월남내부에 있는 게릴라의 역량을 총동원, 마침내 1968년 구정(舊正)을 기해 미군기지와 도시 및 지방 행정기구를 목표로 총 공세를 감행했다.¹⁹⁾

공세는 적보다 월등히 우세한 전투력으로 행하는 것이 상식이나 그들은 3-5명 정도의 소규모 단위의 자살공격까지 감행(敢行)했다. 소위 1968년 구정공세로서 월맹군과 적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월남내의 공산주의자가 노출(露出)되어 체포되는 등 조직이 와해되었고 그간 구축해둔 공산주의의 세력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었다. 전술적으로는 월맹측이 실패를 했으나, 한편으로 구정공세 현상이 미국 TV에 방영되자 참혹한 전선의 모습을 직접 본 국민들이 정부의 낙관적인 발표를 모두 믿으려 하지 않아 불신

18) Summers, 민병식 역, 「월남전 전략」, 병학사, 1983, p. 187.

19) 유재현, 「월남전쟁」, 도서출판 한원, 1992, pp. 243~288.

(不信)만 가중되었다.

전쟁은 살생(殺生)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살생의 현장은 매우 비참하기 마련이다. 이 비참한 현장이 TV스크린을 통해 안방에 전달되자 전쟁의 본질(本質)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국민들, 특히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부인과 자녀들, 나이 어린 학생들, 어머니들, 그들은 남편과 자식과 친구들이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착각에 깊게 빠지게 된다. 이것이 확산되어 미국내 반전(反戰)운동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된다. 전술적으로는 적이 실패한 공세(攻勢)였으나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성공한 셈이었다.

세 번째 기습은 미군측이 1972년에 감행한 소위 크리스마스 폭격이었다. 이는 하노이와 하이퐁 시(市)에 대해 B-52폭격기가 대거 동원되어 월맹이 월남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1972년 12월 29일까지 11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폭격(爆擊)이었다. 적 본토의 힘의 중심지를 집중 강타함으로써, 정치, 경제, 군사적인 부분을 대량 파괴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이듬해인 1973년 1월 15일 월맹을 평화협정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성공했다.

7) 간명(簡明)의 원칙은?

간명이란 계획과 명령이 간단해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목표를 보더라도 월맹은 월남의 정복이라는 단일 목표에 집중(集中)하였으나 미국은 외부 침략의 저지와 월남내의 대계릴라전이라는 혼돈된 두 개의 목표를 위하여 싸웠다. 주월 미 군사지원단도 군사적인 부분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월남의 건설이라는 복잡(複雜)한 정치적 임무까지 떠맡고 있었다. 반면 월맹의 정치국과 중앙당 군사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호지명의 일사분란한 지도(指導) 아래 계획을 작성하고,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노력의 통합(統合)과 집중이 용이하였다.²⁰⁾

20) Harry G. Summers, 민평식 역, 「미국의 월남전략」, 병학사, 1983, pp. 192~198.

또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고 중공(中共)을 두려워했으며 전략적 지시나 훈령(訓令)은 워싱턴, 호놀룰루, 사이공 등에서 단편적이고 통일되지 못한 채 하달되었고, 자유 우방군 사이의 지휘권이 분산(分散)되어 계획을 하는데 협조가 어렵고 효율적이지 못했다.

경계면에서도 역시 월맹은 보안(保安)을 철저히 유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던 반면에 미국은 의회와 매스컴에서 떠들어댔으로 국가 기밀이 적에게 전부 노출되는 동시에 조직적인 군사정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혼란만 거듭했다. 생활조건에서도 적은 계대(梯隊)의 크기에 관계없이 형편없는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서 싸웠으나, 미군은 사이공을 비롯해서 호화로운 사령부 생활과 야전병사들의 생활이 현저하게 대조되었고, 이 때문에 전투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월남국민의 혐오감(嫌惡感)마저 불러일으켰다. 부대기지는 가정처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훌륭하게 만들어서 병사들을 기지방어 작전에 묶어 놓았고, 전투력의 신속한 재배치 능력마저 감소시켰다.

8) 부자(富者)의 전술, 가난뱅이 전술

미국의 전술은 과학기술과 장비에 바탕을 둔 전술이며 기계가 인력을 대신하니 부자가 아니면 싸울 수 없는 부자전술이었다. 당시 월남군은 미국의 원조하에 보병은 행군하는 대신 트럭이나 장갑차를 탔으며, 최후의 돌격은 충분한 공격 준비사격이 선행된 이후에 실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원조가 삭감되자, 월남군은 물자 풍족 상태에서 궁핍(窮乏)상태로 전략했으며 월남군의 전투능력과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

공군의 지원과 육군항공 및 포병 화력지원에 익숙해진 월남군은 미군철수로 작전지원이 중단되자 새로이 가난한 전술과 상황에 익숙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자의 작전에서 가난뱅이 작전으로 전환(轉換)하기에는 적응시간이 너무 없었다.

반면에 적은 외국의 원조가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떻게 싸웠는가? 인도지

나 전쟁 때 처음 월맹이 온갖 수단을 다하여 입수할 수 있었던 화기는 고작 일본군이 유기한 것이거나 프랑스군에게서 노획한 소총류 뿐이었다.

월맹군은 무(無)에서 시작하여 궁핍과 고난을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단련된 군대였다. 전쟁수행 능력은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정신적인 면이 강했고 가난과 궁핍을 면치 못했으며, 장비보다는 손과 발로 전쟁을 했다. 월남내에서는 주민속에 기생하면서 얻어먹는 전쟁을 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중공의 지원이 늘어나자 월맹측의 사기와 전투의지는 증대된 반면 월남군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²¹⁾

9) 미 행정부의 간섭(干涉)

전쟁은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며 군사적 수단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통제되어야 한다. 전쟁은 그 속성이 확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치적인 목적과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제한전쟁에서는 군사적인 수단이 정치에 종속되고 철저히 통제를 받는다.²²⁾

Westmoreland, Abrams 대장 등 군인들은 모두 민간관료들의 통제 속에서 고분고분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Johnson대통령은 Westmoreland대장에게 제2의 맥아더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 바 있었다. 또한 그의 월남전 정책은 주로 화요 오찬 시간에 논의되었는데, 1967년 이전에는 합참의장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장군을 싫어하였으며, “장군(將軍)은 전쟁을 너무 좋아한다. 하긴 전쟁이 없으면 영웅이 탄생하겠나…”라고 빈정대기까지 했다.

상아탑 출신 관료들은 군이 결정해야 할 사항까지 간섭하는 과도한 통제를 했다. 정찰은 주 5회만 하고, 탐지된 군사목표의 공격도 불허(不許)하고 적의 공격시만 응사하도록 했다. 월맹의 북쪽, 폭격지역, 표적, 출격회수

21) 이영희, 「베트남 전쟁」, 두레 신서, 1985, pp. 212~227.

22) 클라우제비츠, 유제승 옮김, 책 세상, 1998, p. 43.

가 엄격히 통제되고, 제한구역과 폭격 금지구역이 설정되었다. 통제를 위반하면 가차없이 문책을 하고, 승인하지 않은 표적에 폭격을 한 미 제7공군 사령관 Lavelle대장을 중장으로 강등시켜 전역시키고, Haiphong항 폭격시 소련 선박을 공격한 책임을 물어 Broughton 대령을 군법회의(軍法會議) 회부했다. 월맹의 호지명 루트에 대한 공격, Cambodia와 Laos의 성역에 대한 공격, 북폭의 중단(中斷), 명절휴전 등 이적행위와 같은 정치적 조치가 민간관료들에 의하여 멋대로 자행되었다. 이 기간을 통해 적은 병력침투와 재편성, 재보급이 가능했다.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으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지도하는 전쟁지도본부의 민간관료의 전쟁에 대한 식견과 감각이 뛰어나야 한다. 군인과 전쟁에 대한 편견과 불협화음(不協和音)은 전쟁을 패배로 이끌어 간다는 교훈을 남겨준 전쟁이 월남전이다.

10) 헬기의 문제점

물량전, 화력전, 정밀 장비의 이용이 미군의 전투방식이다. 미군이 철수한 후의 월남군에게는 미군이 인계한 공군기와 각종 포를 포함하여 장비는 충분했으나 운용이 부실하였다. 특히 헬기가 문제였다.

부대가 이동과 보급 지원시, 부상자 발생시, 포병의 포탄 유도시, 무장(武裝)된 헬기로 근접공중 지원시, 무거운 물건 특히 야포 이동시, 또한 대대장 이상만 되면 지휘용으로 헬기가 지원되었다. 참으로 편리한 전투였다. 월남군은 헬기가 없으면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헬기라는 마약(麻藥)에 중독되어 있었다. 미군의 공중공격과 포병으로 적의 주력을 격멸하면 전과를 확인하고 적이 도주한 후 은닉한 무기와 보급품을 찾고 숨어 있는 소수의 적을 찾기만 하면 되었다.

미군이 철수 후 월맹군이 정규전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도 즉각 조치를 할 지휘관이 없었다. 그는 낮에 헬기를 타고 와서는 전장을 돌아보고는 몇 마디 지시를 하고 헬기를 타고 안락하고 평안하며 가족이 있는 안전한 후

방의 지휘본부로 돌아갔다. 치열한 전투를 하는 현장에는 결심을 하고 사기진작의 핵심인 주요 지휘관이 없었다.

3. 월남 패전을 통해서 본 교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통일을 해야 한다. 자칫 북의 공작에 속아 통일이 되는 경우,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

칼 맑스(Karl Marx)는 계급투쟁에서는 “역사는 유일하게 항구적인 투쟁만이 존재하는데 그 투쟁이란 바로 가난한 자가 있는 자 부자에 대한 투쟁”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를 성실히 수행하면 사회혁명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쟁으로 발전한다고 정의를 내렸으며, 이 공산주의 이론은 2차대전 이후 전세계가 이념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스탈린이 정권을 잡은 후 혁명의 방해요소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형을 단행했다. 전쟁영웅이며 소련군 건설의 일등공신인 두하체프스키 원수 이하 8명의 장군을 나치와 손잡고 스탈린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꾀했다는 죄로 처형했다. 1936년 5,000명이 넘는 장교가 처형되었다. 5명의 원수 중에 3명을, 15명의 군사령관 중 13명을, 85명의 군단장 중 57명을, 195명의 사단장 중 110명을, 406명의 여단장 중에서 220명을 처형했다. 소련은 혁명 후 지식인, 귀족, 군장성의 저항이 있었으나, 히틀러가 1941년 6월 바바로사(Barbarossa)계획으로 소련을 침공하자 오히려 혁명의 완성을 도와준 셈이 되었다. 스탈린은 혁명의 방해가 되는 사람을 선별하여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전선에 투입하여 자연스럽게 제거했다. 1941년 모스크바 전방 단일 전투에서 400만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전쟁 기간 중 군인 750만명이 전사, 1,400만명이 부상하였고, 민간인 1,500만명이 사망하였다. 이 때 지식

인을 비롯한 혁명에 방해가 되는 대상을 전선에 투입하여 자연스럽게 제거했다.

한편 모택동에게는 장개석 총통이 대만으로 탈출한 후, 남아 있는 국부군 출신이 혁명의 방해요소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항미성전이라는 명분으로 국부군 출신 20만을 한국전쟁에 투입하였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인해전술(人海戰術)을 택하여 연합군의 화망속으로 사람으로 바다를 이루어 다 죽게 했다. 자연스럽게 제거했다. 그후 모택동은 홍위병의 문화혁명을 일으켜 혁명의 적대세력인 지식인과 모택동이 위협을 느끼는 인사를 10대와 20대 초반의 공산주의 맹신자를 동원하여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제거했다. 폭력과 체형 및 학대행위를 자행하고 비참하게 참살했다. 피해를 입은 인사가 수천만에 이른다고 한다.

김일성은 6·25전쟁시 남한청년 40만을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징집하여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였다. 혁명의 저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자는 저의가 포함되어 있다. 기존질서를 파괴하기 위하여 인민재판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학살되었다. 민간인 사망이 244,633명, 학살을 당한 사람이 128,968명, 납치가 84,532명, 행방불명이 393,212명이 발생했다.

1975년부터 5년간 중국의 지원을 받던 폴포트(POL POT)에 의해서 자행된 대학살 Killing Field는 인구 1,000만에서 인구의 1/4인 시민 250여만을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학살했다.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식인 자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학살이다. 가난한 자가 있는 자에 대한 철저한 보복이다. 대학을 문 닫고 토지대장을 태우고 책을 불질렀다. 지금은 선생이 없고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없으며 세계의 최빈국이 되었다.

월남에서도 공산화된 이후 지식인과 공무원 및 종교인등은 재교육을 받았다.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고 배신자로 간주되어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 공무원은 계급주의 앞잡이로, 군인은 무력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문예인은 민족정신을 교란한 사람으로, 종교인은 국민을 유혹하고 미신에 빠지게 한 사람으로, 자본가는 국민을 착취한 사람으로 죄를 물어 처형을 하고 재교

육을 시켰다. 그 수가 30만에서 500만으로 추정한다. 육군 중위 정도가 4년을 살다 나왔다. 각 성(省)별로 수용소가 설치되어 한 곳에 2,000명 정도 수용하여 주로 밀림지역에서 말라리아 등 풍토병에 노출된 채로 월 9kg의 식량지원으로 자급자족의 생활을 했다. 면회가 없고 체형과 학대가 자행되고 가혹한 육체노동을 강요하고 의무지원이 없었으므로 영양실조와 병으로 자연스럽게 병들어 죽게하여 제거했다.

4. 맺 음 말

월남은 미군과 한국군이라는 등이 있을 때는 잘 버티어 오다가 철수하자 적의 제1격에 썩은 고목(枯木)이 무너지듯 무너져 버렸다. 월남전은 우리와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와 유사(類似)한 점도 많으며 깊이 생각해볼 문제점이 많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면 싸울 수 없는 지경에 빠진다. 정신을 못 차리면 위장 침투된 간첩이나 동조자에게 조종을 당한다. 불순세력의 정치참여와 데모는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고 틈을 탄 간첩의 활동은 정부가 힘을 발휘 못하게 한다. 특종을 찾아다니는 언론은 국익에 위배(違背)되는 행동을 한다.

공포와 두려움을 통제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공황(恐慌: Panic)현상이 발생하여 싸우지도 못 한다. 그리고 우리는 적의 대남적화 혁명전략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현상들은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현실과 비슷한 점이 많다. 오늘의 우리는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의 길잡이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면서 끝을 맺는다.

『軍史』・『戰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제도·전사(戰史)에 관한 내용
- 나. 군사지 성격에 적합한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관련한 정치·외교·군사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 『전사』: 한국전쟁 관련 정책·전쟁 및 전투사, 전투지원사 등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각주 포함)
- 나. 원고 작성은 국·한문을 혼용하고 고유명사 또는 외국어는 원어를 ()에 표기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년도, 페이지의 순서 및 방식으로 함.
-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 가. 제출하는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A4용지로 출력한 원고 1부와 디스켓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람.
- 나. 우송시 필자의 주소, 논제(영문표기), 성명(영문표기), 전화번호, 간략한 이력/경력을 명기해 주시기 바람.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후 결정함.
-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 가. 『軍史』는 연간 3회 발간(4월, 8월, 12월)하고, 『戰史』는 연간 1회(6월) 발간함. 따라서 2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4월에, 6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8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 나. 『戰史』 원고는 4월 1일까지 당연구소에 접수되어야 하며 내용은 한국전쟁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내용의 원고를 접수하고 있음.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우편번호 140-0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軍史』·『戰史』誌 편집담당자
 - 전화 : 02-709-3175 ● FAX : 02-709-3111
 - E-Mail : yalu58@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mnd.go.kr → 관련사이트 → 국내 군관련사이트 →
군사편찬연구소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부서소개, 정보자료실,
軍史 관련사이트